

김성수 | 고려신학대학원

1. 들어가는 말

각 시편은 독립된 시로 읽을 뿐만 아니라 시편이라는 한권의 책의 구조 안에서, 이웃하는 시편들과의 문학적이고 주제적인 문맥 속에서도 읽을 수 있다.¹⁾ 이것은 시편이 최종적으로 오늘날의 형태로 배열된 신학적

-
- 1) 이처럼 현재의 시편 전체의 구조 가운데서 각 시편을 읽는 시편 해석의 방법을 제임스 메이즈는 “책을 따라 가기”(“Going by the Book”)라고 명명한다(J. L. Mays, “Going by the Book: The Psalter as a Guide to Reading Psalms,” in *The Lord Reigns: A Theological Handbook of Psalms* [Louisville: John Knox, 1994] 119–127.).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의 시편 그룹이 펴낸 책인 『시편의 구조와 그 형성』(J. C. McCann Jr, 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JSOT Press, 1993]에 수록된 논문들은 이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예증을 하고 있다. 최근(2008년)에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콜로키움이 벨기에의 루벵(Leuven)에서 열렸는데 거기서 발표된 논문들을 모은 논문집이 다음

의도를 찾는 것이기도 하면서, 각 시편의 의미를 더욱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읽기 방법이다.²⁾

기본적으로 본 논문은 아래에서 살펴볼 스텝(John Stek)의 시편 25-33편의 구조 개관에 동의하면서 이 구조가 어떻게 이 그룹내의 각 시편들의 관련성 가운데서 증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구조와 이 그룹내의 시편들간의 관련성이 제시하는 신학적인 주제를 찾아내어 이 주제가 시편 제 1권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고는 이 그룹의 시편들이 보여주는 내적인 구조와 각 시편들 간의 어휘적이고 주제적인 관련성을 관찰할 것이다. 이런 작업은 이 그룹의 시편들이 현재의 위치에서 문맥을 이루면서 제공하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각 시편에 대한 이해를 더 풍성하게 해 줄 것이다.

이 그룹의 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죄나 많은 고난들이나 원수들의 거짓된 고발과 공격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은, 야훼의 집으로 피해서, 구원과 용서와 변호를 위해 기도하고, 야훼의 인자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야훼의 의로운 길들을 배우고, 주권적인 왕을 찬양해야 한다. 바로 앞의 그룹인 15-24편이 성전에 들어갈 수

과 같은 이름으로 출판되었는데, 시편의 전체 구조와 단위 그룹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담고 있다. Erich Zenger ed.,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Lovaniensium Series 238(Leuven-Paris-Wapole, MA: Uitgeverij Peeters, 2010). 국내에서는 유윤종이 그의 논문, “시편의 최근 연구 동향,” 「구약논단」 32(2009, 6월), 35-46쪽에서 제럴드 윌슨(G. H. Wilson)의 책(*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과 그 이후의 흐름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경향을 잘 요약하고 있고, 김창대의 논문, “주위 문맥에서 본 시편 46편의 시온 신학,” 「구약논단」 32(2009, 6월)은 이런 방법론을 특별히 시편 46-48편에 적용하고 있으며, 김진규의 논문, “제왕시의 전략적 위치에서 본 시 89편: 다윗 언약은 실패한 언약인가?” 「구약논단」 32(2009, 6월)은 문맥보다는 4-5권에서 제왕시편들을 위치가 갖는 최종 편집적인 의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2) David C. Mitchell, *The Message of the Psalter: An Eschatological Programme in the Book of Psalms* (JSOTSup, 25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69에서도 이와 동일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있는 자의 자격인 토라 순종을 강조한다면,³⁾ 이 그룹은 피난처이자 기도와 찬양의 장소로서의 성전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시편 25-33편 그룹의 구조

스텍(John Stek)은 *NIV Study Bible*의 시편 서론과 노트에서 25-33편을 교차대구적으로 구성된 하나의 그룹으로 본다.⁴⁾ 스텍에 의하면 이 그룹은 하나님의 ‘공홀’에 대한 호소, 야훼의 ‘인자하심’에 대한 간구와 확신, ‘신뢰’를 표현하는 고백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기도시편이자 알파벳 이합체시인 25편과 역시 히브리어 알파벳 수(22절)로 구성된 찬양시편인 33편이 외곽 틀을 이루고 29편이 중심에 위치한다고 본다.⁵⁾ 이와 같은 구조를 도표화 하면 아래와 같다.⁶⁾

-
- 3) 김성수,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문맥으로 시편 15-24편 읽기,” 『개혁신학과 교회』(2010), 53-85 참조. Susan E. Gillingham, “The Levitical Singers and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in Erich Zenger(ed.),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Lovaniensium Series 238(Leuven-Paris-Wapole, MA: Uitgeverij Peeters, 2010), 100-101에서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한편 William P. Brown, “‘Here Comes the Sun!’: The Metaphorical Theology of Psalms 15-24,” in Erich Zenger(ed.),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Lovaniensium Series 238(Leuven-Paris-Wapole, MA: Uitgeverij Peeters, 2010), 276에서는 이 그룹이 19편을 통해서 토라를 천상으로 올라가는 출입구이자 지상의 성전을 확대하거나 대체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 Alphonso Groenewald, “The Ethical ‘Way’ of Psalm 16,” in Erich Zenger(ed.),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Lovaniensium Series 238(Leuven-Paris-Wapole, MA: Uitgeverij Peeters, 2010): 501-511도 시편 15-24편 그룹의 문맥 속에서 시편 16편이 갖는 윤리적인 측면을 다룸으로써 위의 결론을 강화하고 있다.
- 4) John H. Stek, “Introduction and Notes of the Book of Psalms,” Kenneth L. Barker(ed.), *NIV Study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2002), 784, 811. 이 책은 『홀리원 주석성경』(서울: 예장출판사, 2008)으로 번역되었지만 본고에서는 영문판을 주로 참조함.
- 5) Stek, 윗글, 811. 더글라스 스튜어트(Douglas Stuart) 역시 교차대구적인 구조를 가진 25-33편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면서 “창조의 왕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신뢰”라는 제목을 붙인다. 고든 D. 피, 더글라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김성남 역), (서울: 성서유니온 선교회, 2008), 170. 원제는 Gordon D. Fee/Douglas Stuart, *How to Read the Bible by Book: A Guide Tour* (Grand Rapids: Zondervan, 2002).
- 6) Stek, 윗글, 784.

25 알파벳 이합체시 언약적 공흥을 구하는 기도	33 알파벳 이합체 형식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에 대한 찬양
26 “무흠한” 자의 기도	32 참회하는 자의 복
27 거짓 고소자들에 대한 호소	31 거짓 고소자들에 대한 호소
28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의 기도	30 “무덤으로 내려가는 데서” 구원 받은 자의 찬양
29 창조 세계의 왕에 대한 찬양	

이 구조에서는 25편과 33편 외에도 26편과 32편, 27편과 31편, 28편과 30편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구조는 두 편의 ‘성전입장가’인 15편과 24편을 외곽 틀로 삼고 역시 야훼의 창조와 토라를 찬양하는 시편인 19편을 중심으로 교차대구적인 구조를 갖는 15-24편과 매우 유사하다.⁷⁾ 15-24편이 두 편의 ‘성전입장가’인 15, 24편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의 독립된 그룹을 형성한다는 것과 특별히 이 그룹은 19편을 중심으로 교차대구적인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⁸⁾ 특별히 이 그룹 내에서 교차를 이루는 짝 시편들 간의 관련성을 중

7) 윗글, 784. 김성수, 윗글(2010), 53-85 참조

8) 위의 각주 3)과 다음에 인용하는 William P. Brown, 윗글, 각주 2)에 실린 서지 사항을 참조하라. P. Auffret, *La Sagesse a bâti sa maison: Études de structures littéraires dans l'Ancien Testament et spécialement dans les psaumes*, OBO 49(Fribourg: Presses universitaire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2) 407-438; F.-L. Hossfeld/E. Zenger, “Wer darf hinaufziehen zum Berg JHWHs?” Zur Redaktionsgeschichte und Theologie der Psalmengruppe 15-24,” in G. Braulik- W. Gross - S. McEvenue (eds.), *Biblische Theologie und gesellschaftlicher Wandel* (Freiburg-Basel-Wien: Herder, 1993), 166-182; P. D. Miller, “Kingship, Torah Obedience, and Prayer: The Theology of Psalms 15-24,” in K. Seybold-E. Zenger (eds.), *Neue Wege der Psalmenforschung. Für Walter Beyerlin*, HBS, 1 (Freiburg-Basel-Wien: Herder, 1993), 127-142.

심으로 연구한 브라운(William P. Brown)의 연구는⁹⁾ 본 고에서 25-33편 연구에 도입한 방법과 유사하다.

호스펠트와 쟁어(F.-L. Hossfeld/E. Zenger)의 주석은 15-24편 그룹에 대해서는 스택과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25-33편 그룹에 대한 구조 분석에서는 약간 다른 견해를 표명한다.¹⁰⁾ 이들은 25편은 동일한 알파벳 이합체시인 34편과 외곽 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25-34편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들에 의하면 25편과 34편 둘 다 알파벳 이합체 시로서 공통된 주제와 어휘들을 공유하고 있어서 외곽 틀을 형성하고, 25편과 34편의 틀 안에서 28과 30편, 27편과 31편, 26편과 32+33편이 짝을 이룬다고 주장한다.¹¹⁾ 25편과 34편 사이의 형식과 내용상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들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34편은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구원이라는 지혜를 다룬다는 면에서 역시 알파벳 이합체시이자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37편과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시편 사이에는 악인들의 멸망을 호소하는 두 시편이 들어 있어서 이 기도들에 대한 해답으로서 34, 37편이 위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¹²⁾ 윌슨(Gerald H. Wilson)도 '악인들의 멸망에 대한 희망'이라는 주제 아래 34-37편을 한 그룹으로 묶고 있다.¹³⁾ 또 26편과 32-33편을 짝으로 묶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상의 논의들을 참고하여 다음 단락들에서는 스택의 견해를 따라 25-33편 그룹 안에 있는 각각의 짝이 되는 시편들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그룹 내의 각 시편들 전체가 갖는 어휘적이거나 주제적인 관련성에 대해

9) W. P. Brown, *윳글*, 261-275 특별히 참조.

10) F.-L. Hossfeld/ E. Zenger, *Die Psalmen I: Psalm 1-50* (Würzburg: Echter Verlag, 1993), 13참조.

11) 윳글.

12) 스택, 윳글, 821 참조.

13) G. H. Wilson, *Psalms Volume 1*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2), 82-83.

서도 함께 다룰 것이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시편들이 갖는 통일성과 그런 통일성을 통해서 시편 제1권내에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시편 25-33편 그룹 내의 짝이 되는 시편들의 관계

1) 25편과 33편간의 관련성

25편은 불완전한 모습을 갖는 알파벳 이합체시로서, 모함하는 원수와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죄 용서를 간절하게 간청하는 기도 시편이다. ‘탄식’보다는 간구와 신뢰를 고백하는 요소들(8-15절)이 압도적으로 많다.¹⁴⁾ 이에 비해 33편은 야훼의 창조와 이스라엘의 선택과 구원을 찬양하는 시편이다. 알파벳 이합체시는 아니지만 22절로 되어 있으며, 각 절은 모두 2행으로 구성되어 거의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고, 알파벳 이합체시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문학적인 특징(12절 참조)도 가지고 있어서 33편을 교훈적인 의도를 가진 찬양시로 읽게 한다.¹⁵⁾

이 두 시편은 장르상의 차이와는 다르게 많은 주요 어휘들을 공유한다. ‘의지하다’(25:2; 33:21), ‘구원’(25:5; 33:17), ‘인자하심’(25:5,6; 33:5,18,22), ‘정직’(25:8,21; 33:1,4), ‘공의’(25:9; 33:5), (야훼의) ‘이름’(25:11; 33:21), ‘많은’(25:11; 33:16,17), ‘경외하다’(25:12,14; 33:8,18), ‘택하다’(25:12; 33:12), ‘눈’(25:15; 33:18), (야훼께서) ‘보시다’(25:18,19; 33:13), ‘구원하다’(25:20; 33:16,19) 등이다. 특별히 두 시편은 어근은 다르지만 ‘바라다’는 의미의 비슷한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25:3,5,21; 33:20,21,22). 이상의 어휘적 특징은 야훼를 ‘의지하고’ ‘바라며’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야훼께서 ‘정직’과 ‘공

14) Hans-Joachim Kraus, *Psalms 1-59*, trans. Hilton C. Oswald (A Continental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319 참조.

15) 김정우, 『시편주석』 (서울: 총신대출판부, 2005), 698.

의'의 통치 방식을 따라 그들의 환난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공통된 주제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두 시편은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도 강조한다(25:22; 33:12, 19). 또 둘 다 야훼의 언약적인 사랑과 헌신을 의미하는 **חַסֵּד**(헤세드/'인자하심')를 요청한다. 하지만 두 시편은 26-32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거나 암시하는 '성소'와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두 시편의 관련성은, 단지 22절을 갖고 있고 기도와 찬양이라는 외형적 특징만이 아니라 주제적인 포괄성으로 안에 속한 시편들을 포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시편들은 이웃하는 시편들과도 많은 공통된 어휘들과 주제를 갖는다.

2) 26편과 32편간의 관련성

시편 26편도 25편처럼 '탄식'의 요소가 거의 없고 간구와 신뢰가 많이 나오는 '개인 기도시편'으로,¹⁶⁾ 모함당하는 시인이 하늘의 의로운 재판관이신 야훼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요청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1절). 한편 26편과 짝을 이루는 32편은 기독교 전통에서 일곱 편의 참회시편들(6, 32, 38, 51, 102, 130, 143편) 중의 하나로 분류되지만 죄용서 받고 구원받은 자의 행복과 감사를 다루는 개인감사시편이다.

자신의 무흠과 온전함을 주장하며 변호해주시기를 구하는 26편은 죄를 용서받아 정결케 되고 온전케 된 자의 행복을 노래하는 시편인 32편과 주제적으로 연결된다. 둘 다 초점은 '죄인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 두 시편은 다음과 같은 어휘들을 공유하고 있다. 야훼를 '의지하다'(26:1; 32:10), 야훼의 '인자하심'(26:3; 32:10), '눈'(26:3; 32:8), 삶의 길을 '행하다'(26:1,3,11; 32:8), 삶의 중심으로서의 '마음'(26:2; 32:11), '두르다'(26:6; 32:7,10), '손'(26:10; 32:4).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야훼 앞에서의 의로운 삶이나 죄 사함을 통해 의롭게 되는 두

16) Kraus, *위클리*, 325 참조.

길 모두가 야훼를 ‘의지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임할 때임을 25, 33편처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26편에서는 야훼가 계신 ‘집’으로 피하여 무죄함을 천명하며 보호를 요청하고 있고(6-8절), 32편에서는 그 성소가 상징하는 ‘은신처’인 야훼께 피하여 죄 사함의 표현인 환난에서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또 26편에서는 야훼께 자신의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면, 32편에서는 마음에 있는 죄를 아뢰지 않았을 때의 고통을 길게 묘사한다(3-4절). 그리고 26편에서의 의로운 야훼의 뜻을 ‘행하는’ 시인의 삶과 32편에서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의로운 ‘행할’ 길을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조화를 이루고, 야훼를 사랑하여 그의 단을 ‘두루’ 다니는 26편의 시인의 모습(6절)은 32편에서 자신을 의뢰하는 자를 인자함으로 ‘두르는’ 야훼의 모습(7, 10절)과 조화를 이룬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26, 32편이 강조하는 야훼의 ‘인자하심’ 안에서의 의로운 삶이란 주제는 25-33편 그룹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3) 27편과 31편간의 관련성

시편 27편은 앞의 시편들처럼 1-6절의 확신 부분이 길고 탄식의 요소가 많지 않은 개인기도시편이다.¹⁷⁾ 한편 27편에 상응하는 31편은 25-33편 그룹에서 드물게 탄식의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는(9-13절) 개인 탄식시편이다. 두 시편은 대적들의 거짓되고 악랄한 고발과 공격 가운데서 성소로 피한 시인이 공의로운 판결을 구한다는 면에서¹⁸⁾ 25-28편과 유사하다.

둘 다 무고하게 시인을 공격하는 악인들의 위협 가운데 야훼의 ‘선하심’(27:13; 31:19)을 기대하며, 특별히 시인을 피난처인 성소에 숨기시

17) Kraus, 윗글, 332 참조.

18) 윗글, 360-361 참조.

는 야훼의 보호를 확신하는(‘은밀한 곳에 숨기시다’ 27:5; 31:20) 내용을 담고 있다. 27편 5절과 31편 20절의 비교는 주목할 만하다. 성소(네모)와 숲길에 대한 동일한 어휘들의 언급은 각각 ‘초막-은신처-은신처-장막,’ ‘비밀히 감추다-숨기다-숨기다-비밀히 감추다’ 순으로 교차대구를 이룬다.

27:5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감추시며/

כִּי 'צִפְנֵנִי בְּסֹכֶה בְּיוֹם הַקָּוָה

그의 장막 은신처에 나를 숨기시며/

יִסְתַּרְנִי בְּסֹתֵר אֱהֵלֹךְ

31:20 주께서 그들을 사람들의 피로부터 주의 면전의 은신처에 숨기시며/

תִּסְתִּירֵם מִפִּי אִישׁ בְּסֹתֵר פְּנֵיךְ מִרְכַּסֵּי אִישׁ

말다툼으로부터 장막에 비밀히 감추십니다/

תִּצְפְּנֵם בְּסֹכֶה מִרִיב לְשׁוֹנֹת

그 외,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대한 간구(27:11; 31:3), 야훼를 ‘요새’로 고백함(27:1의 ‘능력’; 31:2,4), 야훼의 구원을 의미하는 ‘반석’(27:5; 31:3), 야훼를 ‘빛’과 ‘구원’으로 고백함(27:1,9; 31:2,16), ‘평탄한 길’ 혹은 ‘넓은 곳’으로의 인도(27:11; 31:8), ‘생명’을 의미하는 ‘영혼’(27:12; 31:7,9,13), ‘의지하다’는 어근(27:3 ‘태연하다’; 31:6,14), ‘원수’(27:2,6; 31:8,15), ‘무서워하다’(파하드/פָּחַד, 27:1; 31:11), 하나님의 ‘얼굴’(27:8-9; 31:16, 20), ‘궁핍’을 구함(한네니/הֲנִינִי, 27:7; 31:9), 대적들과 대조가 되는 대명사 ‘나’(27:3; 31:6,14,22), ‘보다’(27:13; 31:7,11),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심’(27:7; 31:22), ‘집’(27:4; 31:2 구원하는 ‘집’), ‘넘어지다’(카살/לָפַץ, 27:2; 31:10 ‘약해지다’), ‘감추다’(차판/צָפַן, 27:5; 31:20; 19절 ‘쌓다’), ‘사방에 두른’ 원수들(27:6; 31:13), ‘부르짖다’(27:7; 31:17), 시인이 스스로 ‘말한’ 것의 인용(27:8;

31:14,22), ‘당신의 종’(27:9; 31:16), 야훼가 시인에게 도움과 구원이 ‘되시다’(하야/הָיָה, 27:9; 31:2,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다’ 11,12절), 악인들의 ‘거짓말’(27:12; 31:18) 등도 두 시편의 공통된 주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시편 사이에는 무려 30여개의 어휘가 공통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놀랍다. 무엇보다 강한 공통점은 둘 다 비슷한 어휘들을 사용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야훼를 기다릴 것을 권면하면서 마무리된다(27:14; 31:24)는 점이다.

27:14 너는 야훼를 기다리라/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며/야훼를 기다리라

קְבוּהָ אֱלֹהֶיךָ / חֹזֵק וְיֵאֱמָן לִבְךָ / קְבוּהָ אֱלֹהֶיךָ

31:24 너희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야훼를 기다리는 모든 자들이

כָּל-הַמְּיַחֲלִים לַיהוָה / חֹזְקוֹ וְיֵאֱמָן לִבְכֶם

이상에서 본 것처럼 27편과 31편의 시인은 둘 다 ‘거짓말’로 자신을 공격하는 엄청난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 ‘구원’이신 야훼가 계시는 ‘피난처’인 성소로 피해서 야훼의 구원을 부르짖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견고하게 야훼를 기다릴 것을 권면하고 있다.

4) 28편과 30편간의 관련성

28편도 앞의 시편들처럼 야훼의 구원에 대한 확신(6-9절)을 가지고, 죽음 직전의 고통스러운 상황(고통과 원수들의 공격)에서 성소로 피하여 간구하는 것을 노래하는 개인기도시편이다. 한편 시편 30편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에서 구원받은 시인이 감사 찬양을 드리는 개인감사시편이다. 이 시편의 표제인 ‘성전 낙성가’(שִׁיר-הַמְנוּחָה הַבַּיִת) 쉬르 하누카트 합바이트)는 이 시편이 솔로몬 성전의 봉헌이나,¹⁹⁾ 포로귀환자들이 재건한 제2성

19) 스택은 윗글, 816에서 이 시편을 역대상 21:1-22:6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과 뒤따르

전의 봉헌²⁰⁾ 혹은 마카비 가문에 의해 정화된 성전 봉헌(수전절)을 가리키는지를²¹⁾ 불문하고 23-29편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성전 신학’의 관점에서 이 시편을 읽도록 안내한다.

이 두 시편은 긴밀히 관련되는데, 무엇보다 두드러진 것은, 28편 1절에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한 것에 마치 응답이라도 하듯이 30편 3절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28:1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עַם-יִוְרְדֵי בֹר) 같을까 하나이다(וְנִמְשַׁלְתִּי)

30:3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데서(מִיִּוְרְדֵי-בֹר) 나를 살리셨습니다(חַיִּיתֵנִי)

또 28편에서 부르짖으며 공황을 간구했다면(2,6절) 30편에서는 공황을 부르짖는 간구를 회상하면서(8,10절) 감사하고 있다. 28편 2,6절의 ‘간구’(תַּחֲנוּן) 타하눈)와 30편 8, 10절의 ‘간구하다’와 ‘공황히 여기다’(אָנָּח) 하난)는 같은 어근에서 온 어휘들이다. 또 두 시편은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יְהוָה אֱלֹהֵי דָּוִד אֶקְרָא) 엘레이카 야훼 에크라, 28:1; 30:2)와 “내가 주께 부르짖다”(שָׁנַעְתִּי אֱלֹהֵי) 쉽바티 엘레이카, 28:2; 30:2)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야훼의 ‘들으심’에 대해서도 간구하고 확신하는 내용(28:2; 30:10)이 공통적으로 나온다. 또 야훼의 ‘도움’(28:7; 30:10)과, 야훼의 ‘힘’ 되심(28:7,8; 30:7 ‘굳게’)도 공통적으로 나와서 야훼에 대한 시인의 신뢰를 강조한다. 이 외에도 28편의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백성’의 구원(8,9절)과 30편의 야훼의 ‘성도들’에 대한 권면(4절)에 대한 관심도 눈을 끈다. 이런 공통점들은 역시 대적들이나 개

는 회개와 용서 기사와 연결시키는데, Hosfeld/ Zenger도 윗글, 188에서 적어도 이 표제는 역대상 기사와 관련시켜 성전 신학을 반영한다고 본다.

20) W. VanGemeren, *Psalms* (Expositor's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1), 296.

21) Kraus, 윗글, 353; Craigie, 윗글, 252-253 참조.

인적인 죄로 인해 초래된 위기 가운데서 ‘성소’로 피해서 부르짖으며 공
홀을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야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공통 주
제를 이끌어낸다. ‘힘’이라는 주제는 29편을 감싸는 핵심적인 주제다
(29:1,11절).

5) 29편의 25-33편 그룹 내에서의 기능

29편은 앞의 기도 시편들(25-28편)과는 달리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왕
이신 ‘야훼’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편이다. 특별히 이 시편에서는 ‘우렛소
리’로 표현되는 ‘야훼의 소리’가 지중해(서쪽)로부터 동쪽의 가나안 산지
(레바논, 시론=헤르몬)와 광야(가데스)로 퍼져나가면서 드러내는 야훼의
강력한 힘과 왕권을 묘사하고 있다.²²⁾ 찬양은 천상의 성전(1-2절)에서
‘만물’ 성전²³⁾(9절)으로 내려오고, 다시 예루살렘 성소(10-11절)로 이동
한다. 이 시편은 가나안의 시의 변형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지만,²⁴⁾ 현재
의 형태 가운데서 큰 바다와 산지와 광야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
는 야훼의 능력과 왕권이 완벽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야훼의 소리’
가 일곱 번 반복되고, ‘야훼’라는 호칭이 무려 열여덟 번 반복되고 있어서
25-33편 그룹의 한 가운데서 야훼찬가로서의 빛을 발하고 있다.

이스라엘 역사의 언약적인 이름 ‘야훼’의 집중적인 반복은 25-33편의
다른 시편들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온 세상을 다스리며,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야훼께 드러져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 이름은 용
서의 근거(25:11), 구원과 인도의 근거(31:3), 의지의 대상(33:21)이 되
기에 29편에서는 찬양의 대상이 되고(29:2) 있다. 그 이름은 야훼의 ‘영
광’을 드러내는데(1-3,9절), 그 영광은 성전에 임한 ‘영광’(26:8)이자 사

22) Kidner, *Psalms 1-72: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on Books I and II of the Psalms* (London: Inter-Varsity Press, 1975), 124, 126.

23) Stek, *윳글*, 815.

24) Kraus, *윳글*, 346 이하를 참조하라.

람의 ‘영광’(전 존재)으로 찬양해야 하는(30:13) 것이다. 비록 이 그룹에는 기도 시편들이 많이 나오지만 야훼께 올리는 찬양과 감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26:12; 27:6; 28:6,7; 30:4,12; 31:21; 32:7,11; 33편). 29편은 그런 찬양을 집중적으로 모아놓았다고 볼 수 있다.

29편에서 찬양의 장소는 ‘성전’이다(הַיְקִיָּל 헤칼, 9절). 다른 시편들이 ‘성전’을 주로 감사의 장소(26:6-7; 26:6), 사랑의 대상(26:7 ‘야훼가 계신 집’; בַּיִת 바이트), 야훼를 사모하는 곳(27:4 ‘성전’), 피난처와 기도의 장소(‘초막’[כֶּהֱן 소크], ‘장막’[אֹהֶל 오헬] ‘은신처’[סֶתֶר 세테르], 27:5; 31:20; 32:7; 28:2[지성소/קֹדֶשׁ דְּבַיִר 데비르 코데쉬]), 용서의 집(30편 표제)으로 말했다면, 29편은 하늘과 땅과 사람들 모두가 야훼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장소로 강조하고 있다.²⁵⁾ 그리고 이 성전은 야훼 자신이 요새와 피난처임을 상징한다(31:1 ‘요새의 집’; ‘은신처’ 32:7). 역시 다른 시편들이 추구하는 방향의 종착점을 보여준다. 성전에서의 예배는 ‘거룩한’(קָדָשׁ 코데쉬) 곳(28:2)에서 ‘거룩한’ 옷(29:2)을 입고 ‘거룩한’ 이름(30:5; 33:21)을 찬양하고 의지한다.

또 29편에서는 다른 시편들에서 노래하는 야훼의 사역이 모두 창조 세계(3-9절)와 자기 백성들(11절)에 대한 ‘왕’(מֶלֶךְ 멜렉)으로서의 사역임을 강조한다(10절).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28:8)와 전쟁의 수행자인 ‘왕’(33:16)은 그의 중에 불과하다. 이 주제는 이웃하는 다른 시편들을 하나로 모은다. 그 왕권은 먼저 ‘영원하다’(עֹלָם 올람, 10절). 왕-야훼의 계획이 ‘영원히’ 서고(31:11), ‘영원한’목자로서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며(28:9), ‘영원한’ 인자하심과 구원을 베풀 것이다(25:6; 31:1). 그의 왕권은 ‘소리’(קוֹל 콜)를 통하여 발휘된다(3-9절). 그의 소리는 온 세상을 창조한 ‘말씀’(33:4,6,9)이었고,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의 ‘소리’(27:7;

25) 시 46-48편은 성전이 있는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의 영원성과 안정성뿐만 아니라 왕이신 야훼의 임재 장소인 시온이 세상의 중심임을 잘 보여준다. 김창대, 윗글, 68-69 참조.

28:2; 31:22)에 대한 응답으로 모든 대적하는 것들을 파괴하며, 성도들의 감사의 ‘소리’를 이끌어 낸다(9절; 26:7). 왕은 ‘홍수’ 위에 좌정하고 있다(10절). 홍수 혹은 ‘많은 물’(3절)은 이웃하는 시편들에서 등장하는 야훼의 백성과 통치를 위협하는 세력을 암시하며(32:6; 33:7), 그 세력들은 결국은 야훼의 통치에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왕-야훼의 ‘힘’(כח 오즈, 1, 3, 11절)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자기를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힘’과 구원을 주기 때문이다(28:7,8). 야훼의 힘 앞에서 용사의 ‘힘’(כח 코아흐)은 쓸모없다(33:16). 왕으로 천상에 ‘좌정 하신’(יָשָׁב, 야삽, 10절; 33:13,14) 야훼는 악한 자와 함께 ‘거하지’ 않고(26:4-5), 야훼의 집에 ‘거하는’(27:4) 자들에게 복을 주고, 세계에 ‘거주하는’ 사람들(33:8,14)을 감찰한다. 그는 자기를 예배하고 의지하는 ‘성도들’(30:4; 31:23; 32:6)인 자기 ‘백성’(11절; 28:9; 33:12) ‘이스라엘’(25:22)에게는 구원과 ‘살롬’의 ‘복을 주신다’(בָּרַךְ 바락, 11절; 28:9). 그래서 그들은 야훼를 송축한다(יְהוָה! בָּרַךְ 바룩 야훼, 26:12; 28:6; 31:21).

25-33편 그룹에서는 인용하는 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29편 9절에서도 찬양하는 말이 인용된다.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אָמַר 오마르) ‘영광이라’ 하도다.” 이런 인용의 모습이 모두 ‘말하다’(אָמַר 아마르)를 동반하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생생함을 더하는 기법이다(격려-27:8; 31:14, 교만-30:6, 놀람-31:21, 죄 고백-32:5).

4. 25-33편 그룹 각 시편들 간의 관계

위에서는 25-33편 그룹의 교차대구적인 구조에서 서로 대응하는 시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제는 각 시편들이 다른 시편들과 갖는 관계들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이다. 이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그룹 내의 각 시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 야훼에 대한 ‘신뢰’의 고백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주제는 25-33편 그룹 전체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주제이면서 기도 시편들에서조차도 아주 길게 표현되었던 주제이다(25:2, 8-15; 26:1, 6-8,12; 27:1-6; 28:6-7, 31:6-8,19-24; 32:6-7; 33:20-21). 이것은 ‘의지하다’ 혹은 ‘신뢰하다’(יָחַץ 바타흐)라는 동사 어근의 반복적 사용(25:2; 26:1; 27:3; 28:7; 31:6,14; 32:10; 33:5,18,22)에 의해서 가장 강력하게 지지를 받는다. 여기에 25편 1절처럼 시인의 영혼이나 손을 야훼께로 ‘드네’ 것(28:2), 야훼를 ‘바라보는’(רָאָה 카바, 25:3,5,21; 27:14; רָאָה 야할, 31:24; 33:18,22; רָאָה 하카, 33:20) 것도 매우 중요한 신뢰의 행위로서 이 그룹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 외에도 시인의 눈이 야훼께로 ‘향함’(25:15), 야훼께로 ‘피함’(פָּחַח 하싸, 25:20; 31:1,19)도 의지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야훼를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경외하는 자’(יָרָא 야레, ‘경외하다’ 25:12, 14; 27:1, 3; 31:20; 33:8, 18), 야훼를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는 회중들인 ‘성도’(יְהוָה 하시드, 30:5; 31:24; 32:6)는 야훼를 신뢰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신뢰의 절정은 31편 5절에 있는 표현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의 소유권과 미래를 완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²⁶⁾ 이 그룹에서 이 주제는 ‘피난처’로서의 성소의 기능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2) 원수들의 무고한 공격과 그로부터의 신원

두 번째 주제는 의인을 공격하는 ‘원수’(אֹיֵב 오옌, 25:2,19; 27:2,6; 30:1), ‘대적’(צָר 짜르, 27:3,13; 32:7; צָרָר 쯔레르, 31:11)에 대한 것이

26) Kraus, 윗글, 363.

다. 이들은 주로 ‘악인’(רשע 라샤, 26:5; 28:3; 31:17; 32:10), 전쟁을 일으키는 ‘까닭 없이 속이는 자’(25:2), ‘군대’(27:3),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27:12), ‘뺨박하는 자’(31:15)로 특징지어진다. 이 그룹에서는 특별히 의인에 대한 중상모략과 거짓 고발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이 그룹의 기도 시편들 중에서 주로 다루지고 있다(25:2-3,19; 26:4-5, 9-10; 27:2-3, 11-12; 28:3-5; 30:1; 31:4, 8, 11-12, 15, 17-20). 27편 2-3절에서는 원수들의 악랄함과 강함을 표현하고 있다면, 25편 3절, 26편 4절, 27편 12절, 31편 4,13,18,20절 등은 의인을 공격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고발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25편 2-3,20절과 31편 1,17절은 그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לֹא בוֹשֵׁי)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26편 1,9절에서는 억울하게 공격당하는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결해주셔서(변호해주셔서) 악인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27편 12절에서는 악인들의 뜻에 의인을 넘기지 말기를 기도한다. 하늘의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올바른 판결은 의로운 시인에게는 억울함을 풀어 주는 ‘신원’이 될 것이고, 대적들에게는 불의에 대한 심판의 판결이 될 것이다(시 7:8; 35:24 참조).²⁷⁾ 그래서 31편 15-16절에서는 악인들로부터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다면, 28편 3-5절과 31편 18,23절에서는 악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하늘의 재판관이신 야훼께 개인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행해진 악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그들의 악행에 응당한 벌을 내리심으로써 불의한 상황을 교정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기도들이다.²⁸⁾ 이 기도들이 성소에서 이루어짐을 생각한다면 이 주제 역시 피난처로서의 성소의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27) VanGemeren, *윗글*, 276.

28) Stek, *윗글*, 792; Erich Zenger, *A God of Vengeance? Understanding the Psalms of Divine Wrat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67.

3) '구원'의 주제

이 그룹의 시편들은 '구원'(עֲצָרָה 예사)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이 단어의 어근과 관련되어 이 그룹에 등장하는 표현들은 모두 25편처럼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부르거나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25:5; 27:1,9; 28:9; 31:2,16; 33:16,17). '구원' 혹은 '보호'는 이 그룹에서는 '도움'(עֲזָרָה 에제르, 28:7; 31:10; 33:20), '빛'(27:1), '바위'(צוּר צ우르, 27:5; 28:1; 31:2), '요새'(산성)(מִצְדָּה 마오즈, 27:1; 28:8; 31:3,5), '산성'(מִצְדָּה 메쭈다, 31:2,3), '반석'(סֶלַע 셀라, 31:3) 등의 명사로도 언급된다. 25편에서는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거나(יָצָא 야짜)'(15절), '고난에서 끌어내거나(יָצָא 야짜)'(17절), '영혼을 지켜(שָׁמַר 사마르) 구원하는(יִצֵּל 나짚) 것'(20절), '환난에서 속량하는(פָּדָה 파다)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모두 힘겨운 고난과 고통으로부터의 건짐을 의미하는데, 이 그룹의 경우 대개는 죄에 대한 징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질병), 원수들의 중상모략과 공격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 '그물에서 끌어내다'는 25편 15절의 표현은 31편 4절에서 그대로 반복되며, '발'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곤경으로부터의 해방을 확신한다는 면에서는 26편과 연결된다(25:15,26:12).²⁹⁾ 이 그룹에서 구원을 비는 기도는 주로 25편 16-22절, 26편 9-11절, 27편 7-12절, 28편 3-5절, 31:1-5, 14-18절에 등장하고, 구원의 확신은 33편 16-19절에 나오며, 구원에 대한 감사는 30편 3,11절에 고백되고 있다. 27편에서는 하나님이 시인을 버리지 않는 것이 구원이며, 그의 길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구원이다. 또 30편 3절에서는 '스올'과 '무덤'으로 내려가는 데서 끌어내고 살리는 것을 구원으로 표현하며, 11절에서는 슬픔이 춤이 되고 베옷이 기쁨이 되는 급격한 변화를 구원으로 표현한다. 다음은 구원과 관련되어 사용된 동사군이 등장하는 절들이다. '야짜'-25:15,17; 31:5, '나짚'-25:20; 31:2,15;

29) Hossfeld/Zenger, 윗글, 163.

33:16,19, ‘파다’-25:22; 26:11; 31:5, ‘הָיָה 하야/살리다’-30:4; 33:19; ‘פָּלַט 파라트/건지다’-31:1; 32:7.

4) 야훼의 길에 대한 가르침

25편 4-5, 8-14절은 야훼의 길과 진리를 가르쳐달라는 기도를 담고 있다. 곤경으로부터의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교정할 수 있도록, 또 구원을 통해서 야훼의 통치의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달라는 기도이다. 지혜문학과 관련된 이 주제도 25-33편에서 종종 나온다. 야훼의 통치 원리, 법의 정신을 가리키는 단어들은 ‘길’(테렉/דֶּרֶךְ 25:4, 8, 9, 12; 27:11; 32:8), ‘도리’(אֲרִיחַ 오라흐, 25:4,10; 27:11), ‘진리’(אֱמֻנָה 에멧, 25:5,10, 26:3; 30:9; 31:5), ‘정의’(מִשְׁפָּט 미슈파트, 25:9; 33:5), ‘정직함’(יֶשֶׁר 야샤르, 25:8,21; 32:11; 33:1,4)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거기에 ‘지도하다’(דָּרַךְ 다락, 25:5) ‘알게하다’(יָדַע 야다, 25:4,14; 31:7,11; 32:5), ‘가르치다’(לָמַד 라마드, 25:4,5,9) ‘교훈하다’(יָרָא 야라, 25:8,12; 27:11; 32:8)는 동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야훼의 길이 교육 되는 것이 구원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33편은 야훼의 ‘말씀’(דְבַר 다바르, 4절)과 ‘공의’(צֶדֶק 체다가, 5절)를 배워야 할 야훼의 길이자 성품으로, ‘인도하다’(יָחַד 나한, 27:11; 31:3), ‘지도하다’(לָמַד, 나할, 31:3), ‘가르쳐 보이다’(שָׁבַל 사칼, 32:8)를 가르침의 형태로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단어들은 ‘구원하다’는 의미로도 혼용되어 쓰이고 있어서(28:11 등) 구원이 야훼의 공의를 보여주는 중요한 길임을 나타낸다. 이런 주제는 26편 1-5절과 11절에서는 야훼의 길을 따라 무흠하고 온전하게 살았던 삶을 살펴 봐 주실 것에 대한 호소로 이어진다.³⁰⁾ 또 시인은 자신의 무흠을 천명하기 위해 악인들의 집회를 ‘미워하고’(שָׂנֵא 사네, 26:5), 허무한 거짓 신을 숭배하

30) 윗글.

는 자들을 ‘미워한다’(31:6)고 선언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그룹의 시편들에는 개인과 특별히 공동체를 위한 교훈과 권면이 자주 등장한다. 27편 14절의 권면은 시인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이 시편을 읽는 공동체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 동일한 권면이 짝 시편인 31편 24절에서 반복되고 있고, 29편 1-2절, 30편 4절, 31편 23절, 32편 11절, 33편 1-3절에서는 회중들에게 교훈을 하고 찬양을 권면하는 부분이 등장한다. 이것은 25편 22절, 28편 8,9절에서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와도 관련되는데 25편 이전과는 달리 이스라엘과 예배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5) 죄와 죄 용서

25편 6-7절, 11절과 18절에서는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한다. 죄와 관련된 어휘들이나 죄 용서와 관련된 주제는 특별히 죄 용서 받은 자의 행복을 노래하는 32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1-5절). 그래서 어휘적으로도 두 시편이 공유하는 것들이 많다. ‘사하다’(סָחַק 나싸, 25:1,18; 32:1,5; 25:11, סָחַק 살라흐), ‘가리다’(קָרַח 카싸, 32:1,5), ‘죄’(חַטָּאת 핫 타트, 25:7; 32:5), ‘허물’(עָוָן 페샤, 25:7; 32:1,5), ‘죄악’(יָיִף 아본, 25:11; 31:10; 32:2,5) 등이 공유된다. 죄 용서는 네 번째 주제인 야훼의 길을 따라 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6) 야훼의 인자하심과 긍휼에 대한 호소와 확신

여섯 번째 주제는 야훼의 언약적인 사랑과 헌신을 의미하는 ‘인자하심’(חַסְדֵּי 헤세드)과 관련된 주제이다. 이 그룹에 속한 시편들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구원과 죄 용서와 가르침을 위해 야훼의 인자와 긍휼과 선하심을 자주 구한다(25:6-7,10; 26:3; 31:7,16,21; 32:10; 33:5,18,22). 25편의 시인도 ‘인자하심’에 근거한 죄 용서를 구하며(6,7절), 야훼의 언

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의 길은 ‘인자하심’과 ‘진리’(אֱמֶת 에멧/신실하심)라고 확신한다(10절). 야훼는 신실한 자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25:10; 31:21; 33:18; 32:10), 세상에는 그의 인자하심이 가득하다(33:5). ‘헤세드’와 관련된 단어들은 ‘공홀’(רַחֲמִים 라하뎀, 6절)과 ‘선하심’(טוֹב 톱, 25:7,8,13; 27:13; 31:19) 등이다. 시인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서 인자하심을 베풀어달라는 절박한 기도인 “나를 공홀히 여기소서”(חַנּוּנִי 한네니, 16절)는 여러 시편들에서 반복된다(25:16; 26:11; 27:7; 30:10; 31:9; 28:2,6; 31:22의 ‘간구’[תַּחֲנִן 타하눈] 참조.). 야훼의 ‘공홀히 여기는’ 행동은 25편 16절의 ‘돌이키다’(פָּנָה 파나)에서 유사하게 표현되는데 이는 공홀이나 은혜나 인자를 베풀기 위해서 숨기거나 가리신(27:8-9; 30:7)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31편 16절에서는 야훼의 얼굴을 비취주시길 기도하고 있으며, 20절에서는 야훼의 ‘얼굴’(면전)의 피난처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25편 17-19절이나 31편 7절은 하나님이 기도자의 곤고와 환난을 ‘보고’(רָאָה) ‘아는’ 것이 ‘공홀’임을 표현한다. 이 주제 역시 ‘피난처’로서의 성전의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7) 고통

이 그룹에서는 고통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드물게 나타나지만 관련 어휘들은 자주 나타난다. 이 그룹의 시편들은 시인의 고통을 ‘외롭고’ ‘괴로운 것’(עָנִי) 아니, 25:16,18; 31:7), ‘근심’ 혹은 ‘환란’(צָרָה) 짜라, 25:17,22; 31:8), ‘고난’ ‘곤고’ 등으로 표현한다. 특이하게 31편 9-10절은 고통으로 인한 육체와 영혼의 기진맥진을 묘사하고 있고, 32편 3-5절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의 영육의 기진맥진을 묘사한다. 25편 19절, 26편 2-3절, 28편 3-5절, 31편 11-13절에서는 원수들의 공격과 조롱과 비방, 이웃들로부터의 소외가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른 시편들은 단지 고통의 상황을 암시할 정도이다. 28편 1절과 30편 3,9절에

서는 ‘스울’과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죽음 직전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30편 5,7절에서는 야훼의 ‘노염’과 ‘주의 얼굴의 가리심’으로 표현하고, 5절에서는 ‘울음’으로 11절에서는 ‘슬픔’과 ‘베옷’으로, 31편 7절에서는 ‘고난’과 ‘환난’으로 표현한다. 32편에서는 그런 고난을 ‘홍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29편에서는 원어는 다르지만 야훼가 ‘홍수’ 위에 좌정하여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위협을 통제하시는 왕으로 제시되어 있다.

8) 간구와 응답

이 그룹의 시편들에서 시인은 자주 ‘부르짖는’(קָרָא 카라, 27:7; 28:1; 30:8, 31:18; שָׁאָה 사바, 28:2; 30:2; 31:22) 자신의 기도 ‘소리’(קוֹל 콜, 26:7; 27:7; 28:2,6; 31:22)를 ‘들으시고’(שָׁמַע 샴아, 27:7; 28:2,6; 30:10; 31:22) ‘응답해주시길’(עָנָה 아나, 27:7) 기도한다. 28편과 31편에서는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동일한 어휘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

28:2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יְהוָה קוֹל שָׁמַע
28:6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יְהוָה קוֹל שָׁמַע
31:22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יְהוָה קוֹל שָׁמַע

이 주제 역시 피난처로서의 성전의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9) 감사와 찬양의 맹세

26편 6-7, 12절은 구원받은 이후에 드릴 감사와 찬양에 대한 맹세를 하고 있다. 기도 시편에서 이 주제는 자주 등장한다. 7절에 나오는 단어인 ‘감사’ 혹은 ‘찬양’(תּוֹדָה 토다)은 이런 주제의 핵심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어의 어근인 동사 ‘야다’(יָדָה)가 이 그룹 내에서 여러 번 반복된다(28:7; 30:4,9,12; 32:4; 33:2). 감사와 찬양에 대한 맹세가 등장

하는 곳은 26편 외에도 27편 6절, 28편 6-7절, 30편 12절, 31편 21절 등 주로 기도시편들에서이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권면하는 부분은 29편 1-2절, 30편 4절, 32편 11절, 33편 1-3절 등 주로 감사 시편과 찬양 시편들에서이다. 여기에 사용된 어휘들은 ‘야다’(감사하다, 찬송하다) 외에,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다’(26:7)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다’(26:7), ‘즐거운 제사를 드리다’(27:6), ‘노래하다’(שיר) 쉬르, 27:6; 28:7; 30:1; 33:3), ‘찬송하다’(연주하다, זמר, 자마르, 27:6; 30:4,12; 33:2), ‘송축하다’(קָרַךְ, 26:12; 28:6; 31:21), ‘(영광을) 돌리다’(הב) 야합, 29:1-2 세 번), ‘예배하다’(29:2), ‘기뻐하다’ ‘즐거워하다’(이상 32:11), ‘즐거이 외치다’(רנן) 라난, 32:11; 33:1), ‘찬양’(33:1) 등이다. 찬양의 맹세는 주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인데 28편 6절과 31편 21,22절은 매우 닮았다.

28:6 야훼를 찬송함이어/ יהוה קָרַךְ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라다/ כִּי־שָׁמַע קוֹל תְּחִנָּנִי
 31:21,22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יהוה קָרַךְ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שָׁמַעְתָּ קוֹל תְּחִנָּנִי

위의 주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33편은 32편과 여러 면에서 관련되는데 무엇보다 33편 1절은 32편의 마지막 절을 그대로 반영하며 두 시편이 연속된 것처럼 연결시킨다.

33:1 너희 의인들아(צַדִּיקִים) 야훼께(ביהוה) 즐거이 외치라(רננו)/
 찬송은 정직한 자들(לְיֹשְׁפִים)이 마땅히 할 바로다
 32:11 너희 의인들아(צַדִּיקִים) 야훼를(ביהו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יִשְׂרָאֵל)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והֲרַנְנִי).

이러한 밀접한 관계는 33편 또한 32편과 같이 ‘다윗의 시편’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한다. 33편에는 표제가 없지만 다수의 히브리어 필사본들과 칠십인역이나 사해사본에는 ‘다윗의’ 혹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³¹⁾

29, 33편은 찬양시편들로서 이 맹세들의 성취로 볼 수 있는데 찬양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29편에서 다루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역시 성소의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10) 피난처, 사랑의 대상, 기도와 찬양의 장소로서의 야훼의 집

시 25-33편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주제가 바로 이 주제라고 볼 수 있다. 29편 항목과 항목 9)에서 언급했듯이 이 그룹에서 성전은 감사와 찬양의 장소이며(לְהַלְלוֹת הַקָּדוֹשׁ, 26:6-7; 28:6; 29:9), 사랑의 대상이며(26:7 ‘야훼가 계신 집’ 바이트/בַּיִת), 야훼를 사모하는 곳(27:4 ‘성전’)이며, 피난처와 기도의 장소이며(‘초막’[מִדְבַּר] 소크), ‘장막’[מִדְבַּר] 오헬] ‘은신처 [מִדְבַּר] 세테르,’ 27:5; 31:20; 32:7; 28:2[지성소/שְׁכֵנֵי דֵבִיר דֵבִיר 코데쉬]), 용서의 집(30편 표제)이다. 그리고 이 성전은 야훼 자신이 요새와 피난처임을 상징한다(31:1 ‘요새의 집’; ‘은신처’ 32:7). 성전에서의 예배는 ‘거룩한’(קֹדֶשׁ 코데쉬) 곳(28:2)에서 ‘거룩한’ 옷(29:2)을 입고 ‘거룩한’ 이름(30:5; 33:21)을 찬양하고 의지한다.

또 우리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아래의 두 절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네모로 된 부분들은 야훼의 집인 성전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말들이며, 26편 8절의 그 ‘집’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나, 27편 4절의 ‘성전’에서 ‘사모한다’ 혹은 ‘구한다’는 표현은 야훼의 ‘영광’이 머무는 임재의 장소(29:9 참조)³²⁾에서 야훼께 드릴 감사와 찬양과 헌신을 진하게 표현하

31) Wilson, 윗글, 555-556; Craigie, 윗글, 270 note 참조.

32) 왕대일은 그의 논문, “시편의 신학-시내 산과 시온 산,” 『구약논단』 32(2009, 6월), 20쪽에서 “시편의 가르침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전제하거나 시온 산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고 있다. 이것은 야훼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신뢰에 다름 아니다(31:23 “야훼를 사랑하라”).

26:8 야훼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을 사랑하고/ יהוה אלהתי מעון ביתך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ומקום משכן כבודך
27:4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שבתִי בבית־יהוה כל־ימי חיי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לחזות בנעם־יהו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ולבקר בהיכלו

이 주제는 위에서 다룬 모든 주제들과 긴밀하게 연결되며, 그래서 이 그룹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시편 1,2편은 시편 전체와 제1권의 서론으로서 토라를 묵상하고 야훼께 피하는 자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다. 이를 뒤따르는 시편 3-14편은 의인과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과 왕이신 야훼에 의한 심판과 구원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강조하고,³³⁾ 15-24편은 야훼의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왕과 백성만이 야훼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음을 노래한다.³⁴⁾ 이와 달리 시편 25-33편은, 야훼의 의로운 백성(개인, 공동체)은 고통 가운데서도 왕이신 야훼께서 임재하시는 ‘피난처’인 성전으로 피하여 야훼의 ‘인자하심’을 ‘신뢰’하여 기도하고, 구원을 받아 성전에서 그의 이름을

확인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섯 권의 책으로 정선된 150개의 시 절반이 시온에 계신 하나님 의 임재를 신앙의 중심지로 소개하고 있다.”고 말한다.

33)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문 “시편 3~14편의 문맥 속에서 시편 8편과 14편 읽기,” 『神學과 宣敎』 9(2005), 63-83을 참조하라. 또 Gillingham(윗글, 115-116)도 이 부분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면서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34) 각주 3) 참조.

찬양할 것을 강조한다. 피난처, 기도와 찬양의 장소,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성전이 강조되고 있는 셈이다. 즉 15-24편에서 성전과 관련하여 1편의 주제인 '토라 묵상'을 강조한다면, 25-33편은 2편의 주제인 야훼께 피하는 장소로서의 '성전'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제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25-33편의 기도시편들(25-28, 31편)조차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묘사보다는 간구와 야훼의 구원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더 많이 강조한다. 또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피난처와 찬양의 장소로서의 성전에 대한 지속적인 언급이 나오며, 공동체를 위한 기도와 권면의 요소들이 등장한다. 또 이 그룹은 일관되게 표제에 나오는(33편에서는 암시적으로) '다윗'이 그러한 경건의 가장 중요한 모범이자 권면자임을 암시적으로 제시한다.³⁵⁾ 이러한 성전의 신학적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성전으로 피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대한 강조는, 시편 전체를 제2성전의 예배를 책임진 레위인들 혹은 제사장들이 최종적으로 수집하게 배열하고 편집했음을³⁶⁾ 생각해보면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시편 1-3권이 다윗 언약의 실패를 보여주는 구조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1-3권 내에서 그러한 실패를 극복할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⁷⁾ 그것은 다윗의 모범을 따라 '피난처' 야훼를 상징하는 성전으로 피하는 것이라고 시 25-33편 그룹은 제시한다.

35) 33편의 표제에 대해서는 각주 31)을 참조하라. J. L. Mays, "David as Psalmist and Messiah," in *The Lord Reigns: A Theological Handbook of Psalms* (Louisville: John Knox, 1994), 98 참조.

36) Gillingham, 윗글, 특별히 120-121을 참조하라.

37) J. C. McCann Jr., "Books I-III and the Editorial Purpose of the Hebrew Psalter," in J. C. McCann Jr, 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JSOT Press, 1993), 95 참조.

6. 참고문헌

- 고든 D. 피, 더글라스 스투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길성남 역), (서울: 성서유니온 선교회, 2008). 원제 Fee, Gordon D./Douglas Stuart, *How to Read the Bible by Book: A Guide Tour* (Grand Rapids: Zondervan, 2002).
- 김성수,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문맥으로 시편 15-24편 읽기.” 『개혁신학과 교회』 24(2010), 53-85.
- _____, “시편 3~14편의 문맥 속에서 시편 8편과 14편 읽기.” 『神學과 宣敎』 9(2005), 63-83.
- 김정우, 『시편주석 I』 (서울: 총신대출판부, 2005).
- 김진규, “제왕시의 전략적 위치에서 본 시 89편: 다윗 언약은 실패한 언약인가?” 『구약논단』 32(2009, 6월), 83-110.
- 김창대, “주위 문맥에서 본 시편 46편의 시온 신학,” 『구약논단』 32(2009, 6월), 63-82.
- 왕대일, “시편의 신학-시내 산과 시온 산,” 『구약논단』 32(2009, 6월), 10-29.
- 유윤중, “시편의 최근 연구 동향,” 『구약논단』 32(2009, 6월), 30-62.
- Brown, William P., “‘Here Comes the Sun!’: The Metaphorical Theology of Psalms 15-24,” in Erich Zenger(ed.),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Lovaniensium Series 238 (Leuven-Paris-Wapole, MA: Uitgeverij Peeters, 2010), 259-277.
- Gillingham, Susan E., “The Levitical Singers and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in Erich Zenger(ed.),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 Lovaniensium Series 238 (Leuven-Paris-Wapole, MA: Uitgeverij Peeters, 2010), 91-123.
- Groenewald, Alphonso, "The Ethical 'Way' of Psalm 16," in Erich Zenger(ed.),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Lovaniensium Series 238 (Leuven-Paris-Wapole, MA: Uitgeverij Peeters, 2010), 501-511.
- Hossfeld, F.-L./ E. Zenger, *Die Psalmen I: Psalm 1-50* (Würzburg: Echter Verlag, 1993).
- Kidner, Derek, *Psalms 1-72: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on Books I and II of the Psalms*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ondon: Inter-Varsity Press, 1975).
- Kraus, Hans-Joachim, *Psalms 1-59*, trans. Hilton C. Oswald (A Continental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 Mays, J. L., "Going by the Book: The Psalter as a Guide to Reading Psalms," in *The Lord Reigns: A Theological Handbook of Psalms* (Louisville: John Knox, 1994), 119-127.
- _____, "David as Psalmist and Messiah," in *The Lord Reigns: A Theological Handbook of Psalms* (Louisville: John Knox, 1994), 87-98.
- McCann Jr. J. C., "Books I-III and the Editorial Purpose of the Hebrew Psalter," in J. C. McCann Jr.(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JSOT Press, 1993), 93-107.
- Mitchell, David C., *The Message of the Psalter: An Eschatological Programme in the Book of Psalms* (JSOTSup. 252; Scheffield: Scheffield Academic Press, 1997).
- Stek, John H., "Introduction and Notes of the Book of Psalms,"

- Kenneth L. Barker, ed., *NIV Study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2002), 776-953.
- VanGemeren, W., *Psalms* (Expositor's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1).
- Wilson, G. H., *Psalms Volume I*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2).
- Zenger, Erich, *A God of Vengeance? Understanding the Psalms of Divine Wrat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검색어

시편의 문맥

시편 25-33편

성전

인자하심

신뢰

Reading the Psalms 25-33 in Context

Sung-Soo Kim, Ph.D.

Professor, Department of Old Testament

Korea Theological Seminary

The paper tries to read Psalms 25-33 in their literary context in order to figure out not only their theological theme(s) in their own location in the midst of the book of Psalms, but also the literary and thematic relationships among the psalms of this group.

Reading the Psalms 25-33 in context needs to investigate the common literary and grammatical features with which the psalms of this group share. The genres, common vocabularies, literary figures of speech, and common themes should be considered. Because the structure of Psalms 25-33 is Chiastic,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ir psalms(Pss. 25-33, 26-32, 27-31, 28-30) and their roles in this group also should be examined.

Following John Stek's opinion about the structure of Psalms 25-33 and their demarcation from the preceding and following psalm groups, the

www.kci.go.kr

paper defines Psalms 25(alphabetic acrostic) and 33 as the outer frame, each of which has 22(Hebrew alphabet number) verses, placing Psalm 29 at the center, which is a hymn praising Yahweh's Kingship in the creature and history. Through the study of the literary and thematic relationships of each pair of Psalms 25-33, we are able to grasp their close connectedness and their common themes. For examples, Psalms 27 and 31 focus upon the house of Yahweh as a refuge and a loving place of the psalmist, while Psalms 28 and 30 make petitions and give thanks for not letting the psalmist go down to the pit. Furthermore, the close relatedness of Psalms 25-33 shows their common concerns for the themes of trust in Yahweh, his vindication of the wrongly accused by their enemies, deliverance based upon Yahweh's righteousness, steadfast love, and mercy, teaching upon Yahweh's way, and forgiveness, etc.

Through reading the Psalms 25-33 in their literary context, we come to acknowledge their close relationships in their literary features and unity in their themes. The theme of this group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those who suffer from their own sins, or many distresses, or false accusations and attacks from their enemies, should take refuge in the house of Yahweh to pray for their deliverance, forgiveness, and vindication, and to express their trust in his steadfast love, to learn his righteous ways, and to praise the sovereign King.

Keywords

Context of Psalms

Psalms 25-33

Temple

Steadfast Love

Trust

- 투고일: 2013년 4월 01일
- 심사일: 2013년 5월 05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5월 10일

www.kci.go.kr